

# '제주 뚫고 홍콩 간 위조 화폐' 경찰 수사

### 지난해 JDC면세점서 위조 외화로 잇따라 면세품 구매 JDC·현금수송업체·농협은행 위폐 감별기 모두 통과 홍콩서 뒤늦게 적발... 경찰, 구매 명단 넘겨 받아 분석

경찰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지정면세점에서 잇따라 발생한 위조 외국 화폐 사용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JDC가 최근 위조 외화로 면세품을 구매한 용의자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위조 화폐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면세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명단을 넘겨 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JDC면세점에서는 지난해 8월과 그해 11월, 3개월 사이 각각 2건의 위조 화폐 사용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JDC 내부 조사 결과 두 사건 모두 신원을 알 수 없는 누

군가가 미화 100달러짜리(한화 기준 15만원 상당)를 위조한 위폐로 면세품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됐다. 위폐는 NH농협은행 제주본부와 외환 거래를 하는 홍콩의 A은행이 현지에서 처음 발견했다.

외환 거래는 서로 다른 국가의 통화를 은행끼리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JDC는 면세점에서 벌어들인 모든 외화를 매일 정산해 다음 날 계좌가 개설된 농협은행에 보내고, 또 농협 측은 이렇게 받은 외화를 일정 기간 보관하다가 외환 거래 계약을 맺은 A은행에 보낸다.

A은행은 화폐 감별 과정에서 농협 측이 보낸 외화에 위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자 현지 경찰에 수사

를 의뢰했다. 홍콩 경찰 감정 결과도 같았다.

이런 사실은 A은행을 통해 지난 4월 농협과 JDC에도 차례로 통보됐다.

문제의 위폐는 현재 홍콩경찰이 소유하고 있다. 홍콩은 우리나라와 형사사법 공조 협약을 맺은 나라여서 우리 측 요청이 있으면 증거물을 인도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홍콩경찰에 사법 공조를 요청할 지를 묻는 질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선 피의자 추적뿐만 아니라 증거품 확보도 중요하다. JDC면세점에서 사용된 위폐들은 국내 감시망을 모두 무력화 할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돼 실물을 확보해야 위조 수준을 알 수 있고, 보안 대책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JDC 면세점은 화폐를 받을 때마다 매장 내 감별기로, JDC와 현금

수송 계약을 맺은 위탁업체는 은행에 보내기 전 자신들이 보유한 감별기로, 농협은행은 외화가 도착하면 또다시 감별하지만 문제 위폐는 'JDC-수송업체-은행'으로 이어지는 삼중 감시망을 모두 통과했다.

지난 2022년과 2024년에도 JDC 면세점에서 위폐가 사용됐지만 당시에는 은행 단계에서 적발됐다.

이는 과거보다 위폐가 더욱 정교하게 위조되고 있는데 반해 국내 감별 수준은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같은 이유로 국가정보원도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주요 임무 중에는 위조 화폐 추적이 있다. 또 JDC는 위폐 사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면세점 200여개 모든 브랜드 매장서 위폐 현금을 받은 날짜와 액수를 기록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이상민·박소정 기자

# 대정 갯바위서 낚시하던 60대 고립·구조

갯바위에 고립됐던 60대 낚시객이 40분 만에 해경에 구조됐다.

14일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 15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해안가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60대 A씨가 물이 밀려들어 육상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해경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해경은 제주해양특수구조대와 화순파출소 구조팀을 현장에 보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해안가와 20~30m 떨어진 사고 지점이 수심이 낮아 연안구조정이 갯바위 인근까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을 확인했다. 이에 제주해양특수

구조대가 동력구조보트를 이용해 A씨를 이날 오후 7시 55분쯤 육상으로 구조했다. A씨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중 간조(물이 가장 낮은 때) 시간을 착각해 만조 시간을 인지하지 못해 고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갯바위 낚시나 연안 활동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역의 물때를 확인하고 밀물 전에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며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소정기자

# "관광업 인력난... 제주형 특화비자 도입을"

### 12일 세계인의날 학술포럼서 정지형 책임연구원 제안

### 생산인구 감소 속 인력부족률 3.1%·특정활동 비중 높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지역 내 총생산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관광·서비스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주형 관광특화비자 도입을 설계해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2일 오후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대회의실에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등이 주최·주관해 열린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 공동 학술포럼에서 정지형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형 외국인 정책 및 비자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제발표문에 따르면 제주 생산인구 감소로 지난해 기준 인력부족률이 3.1%를 기록했다. 제주 외국인 수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제주도 등록외국인 수는 2만8508명으로 총 인구(66만4792명) 대비 4.3%로 총남(5.0%) 다음으로 높았다. 전년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4.0%보다 증가한 수치다. 제주 외국인 체류자격 중 특정활동(E-7) 비자 비중이 14.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제주관광산업에 특화된 준전문인력(E-7-2) 비자 비중이 높았다.

제주형 비자제도 연구용역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력 고용은 제주지역 산업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86.5%로 나타났으며 인력채용 부족률은 38.1%로 카지노, 관광음식점, 관광숙박업에서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 특화형 비자 도입시 외국인 채용 의향에는 79.8%의 응답률을 보였고 카지노와 관광음식점에서 응답률이 가장 컸다.

정 연구원은 "외국인 정책이 지역특화비자, 광역형 비자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빈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고 외국인 인력·인재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형 비자제도 도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연구원은 제주 주요 산업과 연계한 제주 맞춤형 특화 비자제도로 관광·서비스 업종에 특화된 관광 전문인력 특화 비자(E-7-T)를 제안하면서 "관광, 서비스업 등 핵심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과 도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지역 취업과 정착 유도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

# 비양도 인근서 어선 좌초

### 승선원 8명 전원 구조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좌초됐으나 승선원 8명은 모두 구조됐다.

1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9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남쪽 약 0.5km 해상에서 제주 선적 채낚기 어선 A호(71t, 승선원 8명)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 확인 결과 승선원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했으며, 선체 중앙부에서 약 1m 규모의 구멍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경은 긴급 출동 후 어선 자체 배수펌프와 경비함정 배수펌프를 동원해 배수작업을 실시했다. 또 침몰에 대비해 선체에 리프트백을 설치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진행했다. A호는 오후 6시 10분쯤 한림항으로 입항했다. 양유리기자



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제주경찰청은 13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공원 입구에서 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도, 해수욕장·관광지 불법 촬영 예방 강화

###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 점검

제주도가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공영관광지, 축제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범죄 예방에 나선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화장실, 탈의

실,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사전 준비-집중 점검-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제주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

합동 점검은 해수욕장 개장 전인 6월 22일 삼양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유동인구가 몰리는 7-8월 협재·이호테우·함덕·중문색달해수욕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이상민·박소정 기자

독자 제보 750-2232

#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 대상채권

-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KOREA PRESTIGE BRAND AWARDS 2022 大賞